

# 익산 미륵사지 출토 조발 공양품의 기원과 신앙: 물질문화의 관점에서

강건우\*

- I. 서론
- II. 조발 공양의 기원과 전래
- III. 신앙의 대상, 미륵사지 출토 조발 공양품
- IV. 결론

## I. 서론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미륵사(彌勒寺)는 백제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미륵사는 7세기 백제 무왕(재위 600~641)이 창건한 이래 조선 16세기까지 범등을 이어오다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사세가 기울었고 17세기경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람들의 뇌리에 한동안 잊혔던 미륵사는 1974년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1980~1994년에 미륵사지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때 3탑 3금당 가람배치와 사역의 규모 등이 확인되면서 고대 사찰로서의 위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1998년에는 미륵사지 서탑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1915년 일인(日人)들이 덧씌운 콘크리트의 노후 및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해 이듬해에 서탑의 해체보수가 결정되었다.<sup>1</sup> 2009년 1월 서탑의 해체조사 과정 중 심주석

\*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사

<sup>1</sup>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7), pp. 172-

상부 사리공에 봉안되었던 사리장엄구가 발굴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발굴을 기념하여 여러 차례 학술대회가 열렸고, 관련 학술 분과에서 다양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금제사리봉영기에 전하는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 백제 왕후라는 명문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 명문을 토대로 무왕과 의자왕(재위 641~660)대 정치세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sup>2</sup> 이와 더불어 사리장엄구에 안치된 금동제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및 유리제사리기를 비롯하여 개별 유물에 대한 연구와 조사도 활발히 진행되었고,<sup>3</sup> 불교사상적 측면에서는 미륵사의 신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4</sup> 선행들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창건 당시 미륵사 건립의 주체와 장인의 기술력, 귀족층의 향유문화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그런데 그동안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동시기에 이루어진 미륵사지 서탑 기반부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2009~2010년 미륵사지 서탑 기반부 아래에서 금박, 구슬, 바둑돌 등 다양한 유물이 나왔는데, 발굴조사 당시에는 모두 진단구로 보였다.<sup>5</sup> 이들 발굴품 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조발(爪髮) 혹은 발조(髮爪)로 불리는 부처의 머리카락인 나발과 손톱 모양의 유물이다. 이 유물은 2014년과 2015년 주경미의 연구에서 처음 알려졌고, 이후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륵사지 출토품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sup>6</sup>

이에 본고에서는 백제 최대 규모의 사찰인 미륵사에서 출토된 나발과 손톱 모양 유물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조발은 탑을 건립하기 위해 봉헌한 성물로 인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고대 불교문화권에서 지역별 조발탑의 건립에 대한 문헌과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조발 공양의 기원과 전래에 대해서 논하겠다. 다음으로 7세기 미륵사에서 조발 공양이 행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하겠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나발의 크기

177.

- 2 김수태, 「백제 무왕대의 미륵사 서탑 사리 봉안」, 『新羅史學報』 16 (2009); 정재윤, 「彌勒寺 舍利奉安記 통해 본 武王 · 義慈王代の 政治의 動向」, 『한국사학보』 37 (2009); 김영심, 「舍利器 銘文을 통해 본 백제 사비시기 국왕과 귀족세력의 권력관계」, 『韓國史研究』 163 (2013).
- 3 주경미, 「百濟 彌勒寺址 舍利莊嚴具 試論」, 『역사와 경계』 73 (2009); 이승란, 「미륵사지 金銅舍利外壺의 제작 기법과 문양 분석」, 『新羅史學報』 16 (2009); 朴南守, 「益山 彌勒寺址 출토 金鍍과 백제의 衡制」, 『韓國史研究』 149 (2010).
- 4 김상현, 「백제 무왕대 불교계의 동향과 미륵사」, 『한국사학보』 37 (2009); 조경철, 「백제 익산 미륵사 창건의 신앙적 배경-미륵신앙과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32 (2009).
- 5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라북도, 『彌勒寺址 石塔 基단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라북도, 2012), pp. 171-172, 176-177.
- 6 주경미,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의의」, 『百濟研究』 59 (2014); 주경미, 「韓國 石塔 出現期 舍利莊嚴方式의 變化 樣相」, 『百濟研究』 62 (2015). 본고는 두 논문에서 많은 도움과 영감을 받았다.

와 발굴 위치 등을 비교·분석하여, 조성 당시 매납된 나발들이 불상에서 떨어져 나온 편이 아닌 시주자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공양품임을 밝히고자 한다.

## II. 조발 공양의 기원과 전래

부처의 머리카락과 손톱은 사리의 일종이다. 사리는 산스크리트어 शरीर (śarīra)의 음역으로 의정(635~713)이 한역한 『육불공덕경』에 따르면 신골사리와 법송사리로 나눌 수 있는데,<sup>7</sup> 부처의 머리카락과 손톱은 신골사리의 범주에 포함된다. 부처의 열반 이후에 숭앙되는 사리나 불치, 불아, 불골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부처 신체의 일부라는 점에서 골아형사리로 볼 수 있다.<sup>8</sup> 고대 인도에서는 부처의 머리카락과 손톱 사리를 숭배의 대상으로 모셨고, 이를 안치한 탑을 한역 경전에서는 조발탑(爪髮塔) 혹은 발조탑(髮爪塔)이라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가 생전에 재가신자들의 청원을 받아 신체 일부인 머리카락과 손톱을 내어주면서 그 성물의 신이성을 설하였고, 재가신자들은 이를 귀하게 모시고 탑을 건립한 후 숭배하였다”는 것이 조발탑 조성의 주요 내용이다. 여러 경전에서 전하는 조발탑 조성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부처를 만나 예경하고 그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받아 탑을 건립한 인물은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사분율』에서는 형 조와 동생 우바리, 구마리 장군, 『십송율』에서는 급고독 거사, 『마하승기율』에서는 제예부사와 발리가, 『대지도론』에서는 계빈 예발타 선인 등 한역 경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sup>9</sup> 이들은 모두 부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신성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부처가 자신 앞에 현전하는 것처럼 탑을 숭배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부처뿐만 아니라 존자(제자)의 머리카락과 손톱으로도 탑을 세웠다는 사실이다.<sup>10</sup> 신망이 높았던 존자의 머리카락과 손톱은 부처의 조발처럼 진귀한 성물로서 숭배된 것이다.

이러한 초기 조발탑은 불교의 동점에 따라 부처의 성적으로 알려졌고, 재가신자들에게 신

7 “我涅槃後 若欲供養此三身者 當供養舍利。然有二種 一者身骨舍利 二者法頌舍利” 『浴佛功德經』; 望月信享, 『佛敎大辭典』 3 (世界聖典刊行協會, 1974), p. 2186.

8 주경미, 앞의 논문 (2015), p. 85의 주47.

9 김월운 역, 『四分律』 2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5), pp. 283-285, 330-331; 이한정 역, 『十誦律』 3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5), pp. 182, 272; 이영무 역, 『摩訶僧祇律』 2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5), pp. 330-331; 김성구 역, 『大智度論』 1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5), pp. 287-288.

10 주호찬 역,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2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5), p. 568.

성한 장소로 참배되었다. 불법을 구하기 위해 이국의 땅에 온 중국과 신라 승려들의 눈에도 조발탑이 들어왔다. 그들은 구법행을 위해 각 지역을 방문하였고, 이때 보고 느낀 바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들 승려들은 여러 곳에서 조발탑을 실견하였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법현(337~422), 현장(602~664), 혜초(704~787)가 각각 남긴 『고승법현전』, 『대당서역기』, 『왕오천축국전』에 전한다. 법현은 북인도의 나갈국, 승가시국에서, 현장은 중인도의 갈약국사국, 마가다국 등 11개 지역에서 그곳의 성물인 부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봉안한 조발탑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1</sup> 법현이 399년 장안을 출발하여 약 8년 동안 인도 각지를 순례하였다는 점에서, 늦어도 4세기 이전부터 인도에서는 조발탑이 예배의 대상으로 실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조발탑을 세워서 공덕을 기원하였는데, 이는 현장의 『대당서역기』에 그 내용이 전한다.

A. 대성 동남쪽으로 6~7리 갠지스 강 남쪽에 높이 2백여 척 되는 스투파가 있다 … (중략) … 또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넣은 작은 스투파가 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진심으로 이곳을 돌면 반드시 완쾌되는 부처의 복덕을 입는 것이다.<sup>12</sup>

위의 기록과 같이, 조발탑을 돌면 병이 치유된다는 믿음은 부처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내재한 신성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인도 각지에서 조발탑이 건립된 배경 중 하나로 생각된다. 이후 인도의 조발탑 조성은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남방 불교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에서는 부처의 불발사리에 대한 숭배가 확인되는데, 인도 불교의 전파와 함께 조발 공양도 자연스럽게 전해졌을 것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사례로 아누라다푸라 지역의 제타바나(Jetavana) 사원에서 출토된 유리제 나발이 주목된다(Fig. 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제타바나 사원지 출토 나발들은 유리 혹은 청동으로 만든 것으로 유리제 불상의 일부나 다른 재료로 만든 불상의 머리에 붙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sup>13</sup>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견해로 생각된다. 서로 다른 재질의 나발들은 그 자체만의 독립적인 형태로 제작된 예배품으로 판단되며, 남방 불교계의 조발사리 공양 및 조발탑 조성과 관련한 성물로 이해된다.

11 이주형 편,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사회평론, 2009), pp. 452-533.

12 권덕주 역, 『대당서역기』 (올제, 2015), p. 172.

13 주경미, 앞의 논문 (2015), p. 86.



Fig. 1. <나발> Buddha's Spiral Hair, 5th to 6th Century, Glass, Jetavana Temple, Anudharapura, Sri Lanka (Photograph by Joo Kyeongmi)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에도 불발사리 신앙이 전승되었다. 팔리어로 부처의 일생과 본생담을 기록한 『니다나카타(Nidāna-Kathā)』에는 보드가야 인근에서 정각 이후 7주간의 부처 행적이 나온다. 부처가 마지막 주를 보내고 라자야타나(Rājāyatana) 나무 아래에서 계실 때, 타파사(Tapaṣa, 팔리어 Tapassu)와 발리카(Bhallika, 팔리어 Bhallika)라는 이름의 상인 형제를 만나 음식을 공양받고 불법을 전하였다. 두 사람은 부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부처에게 청원하여 머리카락을 받은 후 고국으로 돌아와 탑을 세웠다.<sup>14</sup> 미얀마 사람들은 이 두 상인이 자신들의 선조이며, 그들이 가져온 부처의 8개의 불발사리가 양곤의 쉐다곤 사원(Shwedagon Pagoda)에 모셔졌다고 믿는다.<sup>15</sup> 또한 미얀마의 짜익티요 사원(Kyaikhthiyo Pagoda) 역시 부처의 불발사리와 불치사리가 모셔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승에 따르면 부처의 6개의 불발사리가 미얀마에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 3개의 불발사리가 현재의 황금바위 아래에 봉안되었다고 한다.<sup>16</sup>

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륙부 남부의 초기 고대 국가인 부남국(扶南國)에도 부처의 머리카락이 성물로 숭배되었다. 부남국은 1~6세기 동안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의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sup>17</sup> 3세기경에는

<sup>14</sup> John S. Strong, *Relics of the Buddh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p. 73-74.

<sup>15</sup> 주경미, 「불교 성지 순례의 재현과 미얀마 버강의 마하보디 사원」, 『동남아 문화 이야기』 (술과학, 2015), pp. 211-229 참조.

<sup>16</sup> 미얀마 몬주의 짜익티요 사원에 대해서는 주경미,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전통성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32-3 (2022), pp. 112-119 참조.

<sup>17</sup> 姜燾靜, 「6세기 扶南과 山東의 사르나트 양식 불상-남방해로를 통한 인도 불교미술의 東傳-」, 『中國史研究』 67 (2010),

인도에서 불교가 전래되었고,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을 만큼 인도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sup>18</sup> 또한 부남국의 중심지 중 하나인 앙코르 보레이(Angkor Borei)와 운하로 연결된 항구도시 옥 에오(Oc Eo)는 프톨레마이오스(Claudius Ptolemaeus)의 『지리학』에 언급될 정도로 이른 시기부터 동서를 오가는 무역선들의 중요 기착지였다. 동남아시아 고대 국가들이 중국의 왕실에 이국산 물품을 진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국에서 산출되는 진귀한 생산품 외에도 교역을 통한 물자의 이동이 주요하였다.

B. [천갑] 18년(519)에 다시 사자를 파견하여, 천축에서 만든 단향목으로 조각한 석가모니상과 보리수열을 보내왔으며, 아울러 화제주라는 보석과 울금 소합의 향을 바쳤다…(중략)… 대동 5년(539)에 다시 사자를 보내, 살아있는 무소를 바쳤다. 또 말하기를, 그 나라에 부처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길이가 1장 2척이라 하였다. 이에 조를 내려 사문 석운보에게 사자를 따라가서 맞아오게 하였다.<sup>19</sup>

위의 『양서』를 보면 동남아시아의 부남국이 중국 양(梁, 502~557)에 여러 차례 불상과 보석, 향 등을 조공한 것으로 나온다.<sup>20</sup> 이 중에서 부남국이 1장 2척에 달하는 부처의 머리카락을 공헌한 내용이 주목된다. 539년 양 무제(재위 502~549)는 사문 석운보를 부남국의 왕 루드라바르만(Rudravarman, 재위 515~550?)에게 보내 불발을 모셔오라고 명하였다. 양이 주변국에 사신을 보낸 유일한 사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sup>21</sup> 이는 당대 부처의 사리로서 불발을 인식하고, 부남국의 성물을 얻고자 한 왕의 조치로 이해된다.

주지하다시피 양 무제는 부처의 진신사리 공양 의례에 적극적인 숭불황제였고, 자신을 인도의 전륜성왕에 비견할 만큼 왕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sup>22</sup> 그는 부남관(扶南館)을 설치하고 부남국의 고승 승가바라(479~524)를 초빙하여 경전을 한역시키는 등 스리랑카처럼 불

p. 30.

18 강희정, 「베트남 남부 옥 에오(Óc Eo) 고대 종교미술의 특징과 의의」, 『美術史學研究』 305 (2020), pp. 171-172.

19 “十六年 遣使竺當抱老奉表貢獻 十八年 復遣使送天竺旃檀瑞像·婆羅樹葉 并獻火齊珠·鬱金·蘇合等香 …(중략)… 五年 復遣使獻生犀. 又言其國有佛髮 長一丈二尺 詔遣沙門釋雲寶隨使往迎之” 원문과 번역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南齊書·梁書·南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10), pp. 163-164.

20 양에 遣使한 국가와 빈도 수는 총 29개국 97회로 집계되며, 扶南은 가장 여러 차례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 『梁書』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扶南(10회), 林邑(9회) … (중략) … 百濟(5회) 순이다. 金鍾完, 『梁職貢圖의 성립 배경』, 『중국고중세사연구』 8 (2001), p. 38.

21 金鍾完, 앞의 논문, p. 39.

22 주경미,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 구현과 고대 동남아시아」, 『人文論叢』 67 (2012), pp. 3-47.

연이 깊은 지역으로 부남국을 인식하였다.<sup>23</sup> 양 무제의 진신사리 공양의 적극성은 부남국에서 불발을 가져오기 전인 537년과 538년 기사에도 확인된다.

C. 대동 3년(537) 8월에 고조(양무제)가 아육왕의 탑을 고쳐 세우면서, 구탑 아래에서 사리 및 부처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꺼내었는데, 머리카락은 청감색이었다. 많은 승려들이 손으로 머리카락을 펴보았는데, 손의 힘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였으며, 놓으면 돌돌 말려서 나선형이 되었다.<sup>24</sup>

D. [대동] 4년(538) 9월 15일에 고조는 또다시 사원에 이르러 무차대회를 열고 두 개의 탑을 세웠는데, 각기 금병과 옥병을 준비하여 그 안에 사리와 손톱과 머리카락을 넣어서 7층으로 된 보탑 안에 들였다. 다시 둘 상자에 보탑을 넣은 뒤, 나누어 두 개의 탑 아래에 넣었다. 그리고 왕과 열후 비빈과 공주 및 백성 중 부유한 집에서 내어놓은 금 은 귀고리, 팔찌 등의 진보를 채워 쌓았다.<sup>25</sup>

위의 기사를 종합해보면, 537년 양의 수도 남경에 위치한 장간사(長干寺)의 옛 탑을 중수하면서 사리와 부처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발견하였고, 이듬해인 538년 무차대회에서 불사리와 불조발을 함께 공양한 후 각각을 위한 탑을 건립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에서 비롯된 조발 공양이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제국을 거쳐 중국 남조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99년 장안을 떠난 구법승 법현이 인도에서 조발탑을 실견하였고, 4세기경 관련 경전이 한역되면서 부처의 진신사리인 조발은 중국에서도 예경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발 공양은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한반도에도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와 『광흥명집』에는 각각 “549년 양나라에서 신라에 사리 몇 과를 보냈다”와 “인수 원년(601) 고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본국에다 불탑을 일으켜 공양하고자, 각기 1과의 사리를 청하였기에 조칙을 내려 허락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sup>26</sup> 늦어도 6세기경에는 한반도에서 부처 신체의 일부인 조발사리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시기

23 “以天監五年. 被敕征召於楊都壽光殿華林園正觀寺占雲館扶南館等五處傳譯. 訖十七年都合一十一部四十八卷即大育王經解脫道論等是也”『續高僧傳』卷第1 梁揚都正觀寺扶南沙門僧伽婆羅傳一.

24 “先是三年八月高祖改造阿育王寺塔出舊塔下舍利及佛爪髮髮青紺色衆僧以手伸之隨身長短放之則旋屈爲蠶形” 동북아역사재단 편, 앞의 책, pp. 165-166.

25 “至四年九月十五日帝又至寺設無碍大會暨二刹各以金罍次玉罍重盛舍利及爪髮內七寶塔內. 又以石函盛寶塔分入兩刹剎下及王侯妃主百姓富室所捨金銀環釧等珍寶充積” 동북아역사재단 편, 앞의 책, p. 171.

26 “國史云真興王太清三年己巳梁使沈湖送舍利若干粒”『三國遺事』卷第三 塔像第四 前後所藏舍利; “仁壽元年…(중략)…高麗百濟新羅三國使者將還各請一舍利於本國起塔供養詔許之”『廣弘明集』卷第17 慶舍利感應表并答.

는 후대지만,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서 조발탑이 기록된 점도 한반도 승려들이 이른 시기부터 조발사리 공양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Fig. 2. <양직공도>(부분) *Painting of Foreign Tribute Missions to Liang Dynasty* (detail), 11th Century, Northern Song, Color on Silk, 25.0×198.0cm, National Museum Of China (Buyeo National Museum, *Paekche kisul hŭng e tamda*, p. 175)

Fig. 3. <바둑돌> Pieces for the Go Game, 7th Century, Paekche, Ivory, W. 1.6cm, The Shosoin Repository (Imperial Household Agency, <https://shosoin.kunaicho.go.jp>)

그런데 중국을 통한 전래 외에도 동남아시아 제국의 사신과 한반도 사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교류의 가능성은 없었을까. 『삼국사기』 등에는 한반도에 동남아시아 사신이나 상인이 왔다는 내용은 없지만, 중국의 기록을 살펴보면 직접 만났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이는 중국을 찾은 이국 사신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나라의 풍습을 기록한 「양직공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Fig. 2). 이 그림은 양 무제의 아들인 상동왕 소역(재위 552~555)이 외국 사신의 용모를 관찰하고 풍속을 물어 제작한 것으로 현재는 모사본으로 전한다.<sup>28</sup> 그림의 성격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지만, 「양직공도」에 백제의 사신과 이국의 사신들이 함께 그려져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 그림을 통해 양국간 직접적인 문물의 교류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백제인들은 중국 너머에 이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을 것이다. 또한 양나라 수도에는 타국에서 온 사신들이 묵는 객관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언급한 부남관뿐

27 “588년 백제국이 사신과 승려 惠總, 令斤, 惠窠 등을 보내어 불사리를 전래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동아시아 삼국 간 불사리 전래 양상을 알 수 있다. 연민수 외 역, 『譯註 日本書紀』 3 (동북아역사재단, 2013b), pp. 31-32.

28 양직공도의 현존본은北宋 熙寧10년(1077)에 항주에서 모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형을 잘 간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李弘植, 『梁 職貢圖 論考-특히 百濟國使臣 圖經을 中心으로-』,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87), pp. 385-427.

만 아니라 백제 사신이 묵는 집아관(集雅館)도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제성을 띤 공간 내에서 양국 사신들 간에 형식을 달리하는 교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sup>29</sup> 이러한 추정에는 몇 가지 유물과 기록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예를 들면 백제 의자왕이 일본에 보낸 물품 중에는 상아로 만든 바둑돌이 있는데, 이 상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교역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Fig. 3).<sup>30</sup> 한반도에는 코끼리와 코뿔소 등의 포유류가 서식하지 않으므로, 백제가 상아를 수입하여 붉은색과 남색으로 염색하고 꽃을 머금은 새를 음각한 후 일본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1</sup> 또한 일본 최초의 정사인 『일본서기』에 백제와 이국 간의 물질문화 교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 참조가 된다.

E. 가을 9월에 백제 성명왕이 전부 나솔 진모귀문, 호덕 기주기루, 물부 시덕 마가모 등을 보내어 부남의 보물과 노 2구를 바쳤다.<sup>32</sup>



Fig. 4. <유리구슬> Glass Beads, 6th Century, Three Kingdoms Period, W. 0.1-0.2cm, Gwangju National Museum (Gwangju National Museum, *Hamp'yōng Yedōk-ri Sindōk kobun: pimil ūi konggan, sumgyōjin yōlsoe*, p. 73)

E의 기사는 백제 성왕(재위 523~554)이 부남산 보물을 일본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는 백제가 부남산 보물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백제 사신이 가져온 부남의 보물은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이거나 혹은 유리구슬을 감입한 물품으로 추정된

29 趙胤宰, 「古代中國의 客館制度를 통해 본 百濟客館 集雅館의 實際」, 『百濟研究』 57 (2013), pp. 31-46.

30 “扶南國…(중략)…出金銀銅錫沉香象牙孔翠五色鸚鵡” 『梁書』卷54 列傳 第48 諸夷.

31 신숙, 「신라 興德王 敎書에 보이는 공예 장식과 국제교역」, 『한국고대사탐구』 25 (2017), pp. 327, 333-334.

32 “秋九月 百濟聖明王遣前部奈率眞牟貴文·護德己州己婁與物部施德麻奇牟等 來獻扶南財物與奴二口” 『日本書紀』卷第19 欽明天皇 4年(543) 秋9月. 원문의 한글 번역은 연민수의 역, 『譯註 日本書紀』 2 (동북아역사재단, 2013a), p. 351.

다.<sup>33</sup> 백제 무령왕릉과 신덕고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에 포함된 납의 산지가 태국이라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Fig. 4).<sup>34</sup> 부남국-중국-백제로 이어지는 중계무역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부남국-백제로 연결되는 직접무역이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543년 이전부터 백제가 동남아시아의 부남국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sup>35</sup> 이뿐 아니라 752년의 「매신라물해」에 등장하는 각종 동남아시아산 향약도 이전 시기 이국과의 교류 양상을 짐작하게 한다. 「매신라물해」는 신라의 김태렴 일행이 일본에 가져간 물품을 사기 위해 작성된 물품 목록으로, 여기에 기록된 향약의 수는 모두 18종이다. 이 중에서 침향, 정향, 유향 등은 이른바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산물이며,<sup>36</sup> 이른 시기 한반도에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이국산 물품의 전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834년 흥덕왕(재위 826~836)이 내린 교서를 통해서도 당시 이국과의 교역상을 추정할 수 있다. 흥덕왕은 사치 풍조를 단속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신분에 따라 물품의 사용을 금하는 교서를 내렸는데,<sup>37</sup> 진골 이하 신분이 침향과 자단, 대모 등 이국산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였다.<sup>38</sup> 이는 이전 시기부터 이국산 물품들이 한반도에 많이 유통되었고, 진골 이하 계층들도 사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처의 머리카락과 손톱 사리 등을 포함한 불교물질문화도 한반도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불교물질문화 전래의 중심에는 한반도 출신 승려들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이들은 중국을 통해 각종 불교서적과 불교용품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직접 인도를 향해 구법행을 떠났다. 현재 전하는 문헌에 따르면 인도로 떠난 승려는 앞서 언급한 혜초 외에도 고구려의 현유, 백제의 겸익, 신라의 혜업, 현각, 아리아발마, 현대, 혜륜, 구분, 실명(失名) 2인, 무루, 원표, 오진으로 모두 14명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출신 구법승의 비율은 문헌에 기록된 전체 구법승과 중국 구법승 인원의 약 15%와 22%이다. 교주 출신이 4명, 애주 출신이 2명, 일본 출신이 2명, 소그디아나와 가릉 출신이 각 1명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에서도 적지 않은 인원이 인도를 향해 떠났음을 알 수 있다.<sup>39</sup> 14명의 한반도 구법승

33 김규호 외, 「베트남 옥 에오(Oc Eo)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재질 및 특성 연구」,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49-2 (2016), p. 169.

34 국립광주박물관, 『咸平 禮德里 新德古墳』(국립광주박물관, 2021), pp. 461-463; 국립공주박물관, 『武寧王陵: 新報告書』 IV (국립공주박물관, 2018), pp. 78-79, 405-407.

35 강건우, 「고대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에 전래된 물질문화」, 『東亞研究』 41-2 (2022), p. 97.

36 박남수,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韓國古代史研究』 55 (2009), p. 359.

37 “興德王即位九年 太和八年 下教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國有常刑” 『三國史記』 卷33 雜志 第2 色服.

38 “眞骨 車林不用紫檀沉香 不得帖玳瑁 亦不敢飾以金銀玉” 『三國史記』 卷第33 雜志 第2 車騎.

39 이주형 편, 앞의 책, p. 37.

중 바닷길을 이용한 구법승은 고구려의 현유, 백제의 겸익, 신라의 혜초와 실명 2인이다.<sup>40</sup> 근래에는 승려 원표를 고구려 유민으로 추정하고, 그가 바닷길을 이용해 실리불서와 스리랑카를 순례하였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sup>41</sup> 문헌에는 전하지 않지만 더 많은 한반도 출신 승려들이 인도를 향해 구법행을 떠났을 것이다. 신두고라국(新頭故羅國, 현재 라자스탄 Rajasthan)에서 조발탑을 본 혜초와 같이, 구법승의 왕래를 통해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조발 공양을 비롯한 불교물질문화의 전래가 촉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II. 신앙의 대상, 미륵사지 출토 조발 공양품

미륵사지 사리장엄구가 발굴되고 그해 9월부터 이듬해인 2010년 7월까지 서탑의 해체와 병행하여 기단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미륵사지 서탑 1층 초석 및 기단부에 변형이 발생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탑 기단부 십자형 공간의 남측 바닥 석 하부(이하 서탑 기단부 바닥석)에서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서탑 기단부 바닥석에서 출토된 유물은 유리구슬, 금박, 청동제고리 등을 비롯하여 모두 29건 316점으로 집계되었다.<sup>42</sup>

이들 발굴품 중에서 주목되는 유물은 토제나발이다. 3차 조사까지 수습된 토제나발은 모두 89점으로, 121점의 유리구슬 다음으로 수량이 많다.<sup>43</sup> 발굴보고서에는 이들을 모두 진단구로 소개하였다. 진단구 또는 지진구는 소위 '나쁜 기운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건물의 기단 등에 넣은 물품'을 말하는데, 발굴보고서에는 89점의 토제나발을 진단구로 본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토제나발은 미륵사지보다 이른 시기에 개창한 부여 정림사지와 금강사지 등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토제나발은 모두 불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았고, 미륵사지 출토 토제나발 역시 중앙 목탑 내부를 장식한 소조불상의 일부로 추정되었다.<sup>44</sup>

40 다만 『朝鮮佛教通史』에서 현재 전하지 않는 「彌勒佛光寺事蹟」을 인용해 백제 겸익의 행적을 기록한 점은 추후 검토가 요구된다.

41 계미향, 「天竺求法僧의 行蹟과 思想 研究-7~8세기 慧輪·元表·慧超를 中心으로」, 『韓國佛敎學』 75 (2015), pp. 197-204.

42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앞의 책, pp. 177-178의 표 4-19 참조.

43 상태가 양호한 나발은 71점으로 1점당 약 0.8g 정도의 무게를 보이며, 일부 파손된 나발은 18점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앞의 책, pp. 77-78.

44 최성은, 「동아시아 불교조각을 통해 본 百濟 彌勒寺와 佛像」, 『백제문화』 43 (2010), pp. 131-133.



Fig. 5. <나발> Buddha's Spiral Hair, 7th Century, Paekche, Clay, H. 3.7-4.1cm, Accession no. Mir 1777, Iksan National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6. <나발> Buddha's Spiral Hair, 7th Century, Paekche, Clay, H. 4.4-5.5cm, Accession no. Ssu 2036, Buyeo National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그런데 미륵사지 서탑 기단부 바닥석에서 수습된 89점의 토제나발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륵사에는 두 종류의 나발이 전하는데, 2009년 12월 서탑 기단부 바닥석에서 수습된 89점의 토제나발 외에도 1980년대 후반 서금당지 및 주변에서 발굴된 8점의 토제나발이 남아있다(Fig. 5). 1980년에 출토된 토제나발은 높이 3.2~4.1cm, 최대 폭 3.6~3.7cm로 대형 나발에 속한다. 이 토제나발은 최대 높이 3.7cm인 부여 금강사지 출토 소조불상의 토제나발과 크기가 비슷하다(Fig. 6).<sup>45</sup> 금강사지 출토 소조불상이 7세기 초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된다는 점에서,<sup>46</sup> 금강사와 미륵사의 창건 시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륵사지 출토 8점의 토제나발은 금강사지 출토 토제나발과 같이 대형이고, 서금당지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서금당에 봉안되었던 소조불상의 일부로 이해된다.<sup>47</sup> 또한 현재 서금당지 주변에서 발굴된 불상 편은 8점의 토제나발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금당의 주존불로 소조불상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소조불상은 무왕이 세운 사찰로 알려진 제석사지에서도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미륵사지 인근에 위치한 제석사지 폐기장에서 364점의 소조상 파편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6~7세기 중대형 소조상이 부여와 익산에서 많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8</sup>

45 금강사지에는 모두 16점의 토제나발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9점은 금당지에서 조사되었다. 국립부여박물관, 『扶餘 金剛寺址』 (국립부여박물관, 2023), pp. 300-303.

46 이병호, 「百濟 泗泚時期 塑造像의 展開過程」, 『東垣學術論文集』 14 (2013), pp. 344-345.

47 최성은, 앞의 논문 (2010), pp. 133-134.

48 최성은, 「百濟 7세기 塑造像의 樣相과 傳播 -신라 및 일본 白鳳期 소조상과 관련하여-」, 『백제문화』 49 (2013), pp. 11-



Fig. 7. <나발> Buddha's Spiral Hair, 6th Century, Silla, Bronze, W. 29.0cm, Accession no. Hwa 126, Gyeongju National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8. <나발> Buddha's Spiral Hair, Koryŏ, Iron, H. 4.1-4.5cm, Accession no. Cjm 967, Cheongju National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제작시기와 재질은 다르지만, 불상에서 떨어져 나온 나발의 예는 경주 황룡사지와 청주 흥덕사지 출토품에서도 확인된다. 경주 황룡사지 강당지 북쪽 건물터에서 출토된 청동나발의 지름은 최대 7.5cm이고, 높이는 최고 4.2cm에 이른다(Fig. 7). 머리 부분에 4개의 나발이 붙어있어 조성 당시부터 일체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주 흥덕사지 출토 철제나발은 고려 때 제작된 것으로, 높이는 3.1~4.5cm이며 모두 7건 8점이다(Fig. 8). 이 중에는 나발과 머리 상부 일부가 붙어있는 예가 보이는



Fig. 9. <나발> Buddha's Spiral Hair, 7th Century, Paekche, Clay, H. 1.6cm, Accession no. Iks 14, Iksan National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데, 이는 불상 조성 이후 원형에서 나발이 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뿐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조불상(덕5150)도 나발을 따로 만들어 머리 위에 붙인 것으로 관찰된다.

반면에 미륵사지 서탑 기단부 바닥석에서 출토된 89점의 토제나발은 서금당지 출토 8점의 토제나발과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이 토제나발은 높이 1.24~1.60cm, 폭 0.85~1.05cm로, 전

체 크기가 서금당지 출토 토제나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Fig. 9). 서금당지 출토 토제나발은 높이와 폭의 비율이 1:1이지만, 서탑 기단부 바닥석 출토 토제나발은 높이와 폭의 비율이 1:0.66이다.<sup>49</sup> 크기만을 보아도 두 유물은 차이가 있고, 특히 출토 위치상 89점의 토제나발을 8점의 토제나발처럼 소조불상의 일부로 단정하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89점의 토제나발은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도 조금씩 다르다. 이 토제나발은 원뿔의 외면에 나선으로 띠를 4~5번 정도 감아올렸고, 바닥은 대체로 편평하다.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는 탑이라는 종교적 공간에 이처럼 많은 수량의 토제나발을 매납한 것에는 처음부터 시주자의 어떤 의도와 바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10. <손톱 모양 장식> Nail-shaped Objects, 7th Century, Paekche, Silver, W. 1.5-1.6cm, Accession no. Iks 28, Iksan National Museum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1. <귀걸이> Earring, Proto-Three Kingdoms Period, Gold, W. 2.7cm, Accession no. Ssu 51151,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www.emuseum.go.kr>)

Fig. 12. <미륵사지 석탑 기단부 평면도> Floor Plan of the Stone Pagoda of Miruksa Temple Sit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www.nrich.go.kr>)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탑 기단부 바닥석 하부에서 출토된 2점의 은제장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은제장식의 길이는 1.5~1.6cm, 너비는 0.7~0.8cm, 두께는 0.1cm 이하이며, 2점 모두 손톱과 비슷한 모양이다(Fig. 10). 김포 운양동과 중국 길림성 유수 노하심유적에서 출토된 금제장식과 비교되지만, 유물들의 형태와 재질은 다르다(Fig. 11).<sup>50</sup>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점의 은제장식이 토제나발과 같은 지점에서 발견되었다는 사

<sup>49</sup>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라북도, 앞의 책, pp. 178-179.

<sup>50</sup>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라북도, 앞의 책, pp. 202-203.

실이다. 즉 발굴의 대상인 S1-통로바닥석 1~4와 S1-고막이석 2 중에서 토제나발과 은제장식은 S1-통로바닥석 1에서 나왔다(Fig. 12).<sup>51</sup> 토제나발과 손톱 모양의 은제장식이 함께 발견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반도에 보고된 바가 없다. 중국의 경우 문헌기록은 전하지만, 남조 유적에서도 부처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함께 봉안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남조 이후에 조성된 수(隋) 인수 4년(604) 신덕사 사리구에서 공양자의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두발이 나왔고, 광저우 광효사 대웅전 뒤편에 고승 혜능(638~713)의 머리카락을 봉안했다고 전하는 답이 남아있다.<sup>52</sup> 이는 실물 자료로서 수대에 두발 공양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 차이가 있다면 백제 미륵사는 조발 공양을 확인할 수 있는 토제나발과 손톱 모양의 공양품이 함께 나온 것이 특징이다. 토제나발이 불상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혹은 처음부터 토제나발만 조성되었음은 불분명하지만, 늦어도 7세기 미륵사 서탑에서 부처의 진신사리인 조발의 조형화를 통해 공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발 공양의 기저에는 『사분율』에서 전하는 내용이 참조가 된다.

F. 여래의 머리칼이나 손톱에 대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는 마음을 내면 그들 온갖 하늘 사람·마·범천·사문·바라문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으리라… (중략)… 보살의 도를 배워 손톱과 머리카락에 공양하면 반드시 위 없는 도를 이룰 것이다.<sup>53</sup>

F의 기록에서는 ‘부처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공경하고 공양하면 공덕을 얻고 도를 이룰 것’이라고 전한다. 미륵사지 시주자들은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나발과 손톱 모양 공양품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발 공양품은 물성을 가진 물질에서 시주자의 염원을 담은 성스러운 대상품으로 인식되어 특정 공간에 안치된 것이다. 이를 통해 토제나발과 손톱 모양의 조형물은 물질에서 의례를 통해 신성성(神聖性)을 획득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미륵사지 서탑 통로바닥석의 이원적인 두께 가공이나 바닥석 주위에서 석회 편이 많이 출토된 점도 특정 공간에 유물

51 나발은 S1-통로바닥석1에서 다수가 출토되었고, 일부는 S1-통로바닥석2에서도 확인된다. 나발이 나온 지점은 위치상 모두 근접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앞의 책, p. 175의 그림4-8 참조.

52 朴待男, 李松蘭, 『중국 隋 仁壽 4년 神德寺 舍利具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6 (2010), pp. 235-240; 張馭賓, 『中國塔』 (山西人民出版社, 2000), pp. 148-149.

53 “賈人當知 普天世界 魔衆梵衆 沙門婆羅門 衆天及人於 如來 髮爪 興供養恭敬 令一切諸天世人 魔衆梵衆及。沙門婆羅門 衆得其功德不可稱計賈”, “學菩薩道 能供養爪髮者 必成無上道 以佛眼觀天下 無不入無餘涅槃界” 『四分律』 卷31 한글 번역은 김월은 역, 앞의 책, p. 285.

을 매납하기 위한 시주자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Fig. 12)의 S1-통로바닥석 1 부재는 얇은 판형 형태로 잘 가공되어 있으며 너비가 가장 큰 반면에, 나머지 S1-통로바닥석은 대부분 불룩하거나 두께가 두껍고 부정형의 요철이 확인된다. 또한 S1-통로바닥석 1 하부에서만 석회 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를 봉안하기 위해 심주석의 맞댄 면에 석회를 넣은 방식을 착안할 때, 이는 조발 공양품을 넣고 특정 공간을 봉하기 위해 석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54</sup> 이처럼 탑 내 사리공 주변에 공양품이 발견된 예는 부여 왕흥사지 목탑지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공양품의 매납 방식은 남조 불교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sup>55</sup> 또한 인근의 왕궁리 오층석탑 1층 지붕돌 중앙부와 기단부 심주석에서 각각 공양품이 발견되었다는 점도 이 일대 공양의례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sup>56</sup> 즉 미륵사 불교의례에 참석한 귀족들은 사찰의 중심 공간인 탑 내 가운데 심주석에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후, 그 아래 기단부 바닥석에 부처의 사리로서 신성성을 내재한 토제나발과 손톱 모양 공양품을 공양하고 예불하기 위해 매납한 것이 아닐까 한다.<sup>57</sup>

한편 최근 소개된 포항 법광사지 출토 토제나발도 흥미로운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근래 신라 사찰인 법광사지 금당 내 대좌 앞쪽에서 토제나발 140여 개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나발의 최대 높이는 3.3cm, 지름은 2.4cm이다(Fig. 13). 선행연구에서는 이 토제나발을 1969년 금당지 서쪽 모서리에서 발견된 석조여래좌상의 불두를 장엄한 나발 일체로 추론하였다. 현재 석조여래좌상은 목 아래 부분만 전하는데(Fig. 14), 남아있는 형태로 볼 때 석조불두에 토제나발을 부착한 것이거나 혹은 불상의 신체는 석조로, 불두는 소조로 제작하였다고 한다.<sup>58</sup> 그러나 지금까지 석조불두에 소조나발을 부착한 사례는 없고, 불두와 불신을 각각 소조와 석조로 만

54 발굴보고서에는 통로바닥석의 이원적인 두께 가공을 진단구를 넣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앞의 책, pp. 172, 206-207. 사리공 윗부분을 밀봉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공간을 마련하고 공양 의식을 통해 유물을 매납한 후 석회(강회)로 밀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주경미, 앞의 논문 (2014), pp. 82-84, 88.

55 주경미, 앞의 논문 (2015), p. 79.

56 미륵사지 서탑처럼 탑 내 두 공간에 불사리 및 공양품을 안치한 사례는 王宮里 五層石塔을 비롯하여 南里寺址石塔, 淨石寺塔, 禪林院址塔, 東院里塔 등이 있다. 신용철, 「統一新羅 石塔 舍利安置場所에 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 5 (2007), pp. 81-82.

57 미륵사지 사리공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布施者와 봉납할 물품의 선정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상, 「왕흥사지 목탑과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비교」, 『역사와 담론』 54 (2009), pp. 56-57.

58 함윤아, 「포항 법광사 건립과 중창에 대한 일고찰」, 『지역과 역사』 49 (2021), pp. 101-118; 김동하, 「포항 법광사지 금당의 평면 계획과 석조여래좌상」, 『불교미술사학』 37 (2024), pp. 5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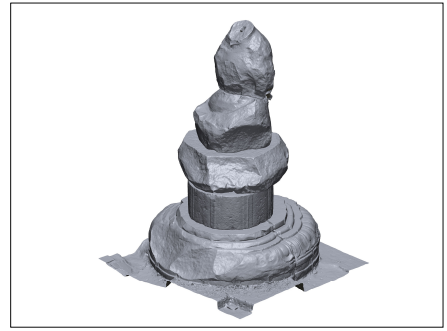


Fig. 13. <포항 범광사지 출토 나발> Buddha's Spiral Hair Excavated from Pöpkwangsa Temple Site in Pohang (Gyeongbuk Cultural Foundation Cultural Heritage Center, <https://gbcpc.or.kr>)

Fig. 14. <불상과 대좌 가상복원도> Virtual Restoration of a Buddha Statue and Pedestal (Gyeongbuk Cultural Foundation Cultural Heritage Center, <https://gbcpc.or.kr>)

들어 결합한 경우도 없다. 또한 대좌 아래에 석조불두와 토제불두 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토제나발은 불두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부터 미륵사지 조발 공양품처럼 하나의 신성한 성물로 인식되어 금당의 중심부에 봉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미륵사지 서탑 기단부 바닥석에서 출토된 조발 공양품을 재조명하였다. 부처의 머리카락과 손톱은 성보의 대상으로 고대 인도에서 기원하여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전해졌다. 범현, 현장, 혜초 등의 구법승들은 천축에 가서 예배의 대상인 조발탑을 실견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순례기에 남겼다. 스리랑카의 제타바나 사원, 미얀마의 쉐다곤 사원, 짜익티요 사원 등이 조발 공양과 관련한 대표적인 성소이다. 이 중에서도 제타바나 사원에서 출토된 유리제 나발은 남방 불교계의 조발사리 공양 및 조발탑 구성과 관련한 성물로 추정된다. 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륙부 초기 고대 국가인 부남국에도 부처의 머리카락이 성물로 숭배되었다. 부남국의 왕은 중국 양 무제의 요청으로 부처의 머리카락을 바쳤는데, 이는 양이 주변국에 사신을 보낸 유일한 사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도의 전륜성왕을 표방한 양 무제는 남경에 위치한 장간사의 옛 탑을 중수하면서 사리와 부처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발견하였고, 이듬

해 무차대회에서 불사리와 불조발을 함께 공양한 후 각각을 위한 탑을 건립하였다.

한역 불교 경전이 유입되고, 해초를 비롯한 구법승의 왕래를 통해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조발 공양이 한반도에도 전래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발 공양과 관련해서는 미륵사지 출토품이 주목된다. 현재 미륵사지에는 모두 2종의 토제나발(89점, 8점)이 전하는데, 이 중 크기가 큰 토제나발(8점)은 서금당지와 그 주변에서 발굴된 것으로, 부여 금강사지 출토 토제나발과 같이 소조불상의 일부로 추정된다. 반면 미륵사지 서탑 기단부 바닥석에서 나온 토제나발(89점)은 크기와 발굴 장소로 볼 때, 특정 공간에 매납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제작된 공양품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장소에 손톱 모양 은제장식(2점)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두 유물은 부처의 진신사리를 조형화한 공양품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사찰에서 나발은 출토된 바 있지만, 나발과 손톱 모양의 유물이 함께 나온 예는 미륵사지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주제어(keywords)\_백제(Paekche), 미륵사지(Mirŭksa Temple), 조발 공양품(Buddha's hair and nail relics),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구법승(pilgrim monks)

■ 투고일 2025년 1월 28일 | 심사개시일 2025년 2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5년 3월 7일 ■

## 참고문헌

### 1. 사료

『廣弘明集』

『大唐西域求法高僧傳』

『梁書』

『三國史記』

『日本書紀』

### 2. 한국어 문헌

강건우, 「고대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에 전래된 물질문화」, 『東亞研究』 41-2, 2022.

姜燾靜, 「6세기 扶南과 山東의 사르나트 양식 불상-남방해로를 통한 인도 불교미술의 東傳-」, 『中國史研究』 67, 2010.

\_\_\_\_\_, 「베트남 남부 옥 에오(Óc Eo) 고대 종교미술의 특징과 의의」, 『美術史學研究』 305, 2020.

계미향, 「天竺求法僧의 行蹟과 思想 研究-7~8세기 慧輪·元表·慧超를 中心으로」, 『韓國佛敎學』 75, 2015.

국립공주박물관, 『武寧王陵: 新報告書』 IV, 국립공주박물관, 2018.

국립광주박물관, 『咸平 禮德里 新德古墳』, 국립광주박물관, 2021.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彌勒寺址 石塔 기단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2012.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7.

국립부여박물관, 『扶餘 金剛寺址』, 국립부여박물관, 2023.

권덕주 역, 『대당서역기』, 울재, 2015.

김규호 외, 「베트남 옥 에오(Oc Eo)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재질 및 특성 연구」,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49-2, 2016.

김동하, 「포항 법광사지 금당의 평면 계획과 석조여래좌상」, 『불교미술사학』 37, 2024.

김성구 역, 『大智度論』 1,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5.

김월운 역, 『四分律』 2,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5.

金鍾完, 「梁職貢圖의 성립 배경」, 『중국고중세사연구』 8, 2001.

동북아역사재단 편, 『南齊書·梁書·南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10.

박남수,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韓國古代史研究』 55, 2009.

朴待男, 李松蘭, 「중국 隋 仁壽 4년 神德寺 舍利具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6, 2010.

신 숙, 「신라 興德王 敎書에 보이는 공예 장식과 국제교역」, 『한국고대사탐구』 25, 2017.

신용철, 「統一新羅 石塔 舍利安置場所에 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 5, 2007.

연민수 외 역, 『譯註 日本書紀』 2, 동북아역사재단, 2013a.

- \_\_\_\_\_, 『譯註 日本書紀』 3, 동북아역사재단, 2013b.
- 이병호, 「百濟 泗泚時期 塑造像의 展開過程」, 『東垣學術論文集』 14, 2013.
- 이영무 역, 『摩訶僧祇律』 2,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5.
- 이주형 편,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사회평론, 2009.
- 이한상, 「왕흥사지 목탑과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비교」, 『역사와 담론』 54, 2009.
- 이한정 역, 『十誦律』 3,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95.
- 趙胤宰, 「古代 中國의 客館制度를 통해 본 百濟客館 集雅館의 實際」, 『百濟研究』 57, 2013.
- 주경미,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 구현과 고대 동남아시아」, 『人文論叢』 67, 2012.
- \_\_\_\_\_,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의의」, 『百濟研究』 59, 2014.
- \_\_\_\_\_, 「韓國 石塔 出現期 舍利莊嚴方式의 變化 樣相」, 『百濟研究』 62, 2015.
- \_\_\_\_\_, 「불교 성지 순례의 재현과 미얀마 버강의 마하보디 사원」, 『동남아 문화 이야기』, 솔과학, 2015.
- \_\_\_\_\_,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전통성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32-3, 2022.
- 최성은, 「동아시아 불교조각을 통해 본 百濟 彌勒寺와 佛像」, 『백제문화』 43, 2010,
- \_\_\_\_\_, 「百濟 7세기 塑造像의 樣相과 傳播 -신라 및 일본 白鳳期 소조상과 관련하여-」, 『백제문화』 49, 2013.
- 함윤아, 「포항 범광사 건립과 중창에 대한 일고찰」, 『지역과 역사』 49, 2021.

### 3. 동양어 문헌

張馭寰, 『中國塔』,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2000.

### 4. 서양어 문헌

Strong, John S. *Relics of the Buddh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References

### 1. Primary Sources

*Da Tang Xiyu qifafa gaoseng zhuan*

*Guang hongming ji*

*Liang shu*

*Nihon Shoki*

*Samguk sagi*

###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o, Yunchae (Cho, Yun-jae). “Kodae Chungguk ūi kaekkwon chedo rŭl t'onghae pon Paekche kaekkwon chibagwan ūi silche[Practices of “jibagwan,” a diplomatic residence for Baekje envoys: in comparison with a residence for foreign envoys in ancient China]”, *Paekche yŏn'gu* 57 (2013): 17-52.

Ch'oe, Sŏngŭn (Choe, Song Eun). “Tong Asia pulgyo chogak ūl t'onghae pon Paekche Mirŭksa wa pulsang[Buddhist Image of the Mireuksa Temple of the Baekche Period Seen Through East-Asian]”, *Paekche munhwa* 43 (2010): 123-158.

\_\_\_\_\_. “Paekche 7 segi sojosang ūi yangsang kwa chŏnp'a-Silla mit Ilbon paekponggi sojosang kwa kwallyŏnhayŏ-[Clay Buddhist Images of Baekje-With Special Emphasis on its Influence on Silla and Hakuho Sculptures-]”, *Paekche munhwa* 1, no. 49 (2013): 5-40.

Chu, Kyŏngmi (Joo, Kyeongmi). “Yang Muje (Liang Wu di) ūi ayugwang chŏnsŭng kuhyŏn kwa kodae tongnam Asia[The Aśokan Revivalism of Emperor Wudi in Liang China and Ancient Southeast Asia]”, *Inmun nonch'ong* 67 (2012): 3-47.

\_\_\_\_\_. “Mirŭksaji sŏkt'ap sari changŏmgu ūi kusŏng kwa ūiŭi[The Arrangement of Buddhist Relic Deposit in Mireuksa Stone Pagoda and its Significance]”, *Paekche yŏn'gu* 59 (2014): 73-114.

\_\_\_\_\_. “Hanguk sŏkt'ap ch'urhyŏn'gi sari changŏm pangsik ūi pyŏnhwa yangsang[Stylistic changes of the Buddhist relic cult during the early stage of stone pagoda in Korea]”, *Paekche yŏn'gu* 62 (2015): 71-99.

\_\_\_\_\_. “Pulgyo sŏngji sullye ūi chaehyŏn kwa Miyanma (Myanmar) Pŏgang (Bagan) ūi Mahabodi (Mahābodhi) sawŏn.” In *Tongnama munhwa iyagi*, 198-229. Sŏul: Sol kwahak, 2015.

\_\_\_\_\_. “Miyanma (Myanmar) 3 tae pulgyo sŏngji ūi yŏksasŏng kwa chŏnt'ongsŏng yŏn'gu[The Historicity and Traditionalism of the Three Great Sacred Sites in Myanmar Buddhism]”, *Tongnam asia yŏn'gu* 32, no. 3 (2022): 93-140.

Ham, Yuna (Hahm, Yun-a). “P'ohang Pŏpkwangsa kŏllip kwa chungch'ang e taehan ilgoch'al[A Study

- on the Establishment and Rebuilding of Beopgwangsa Temple in Pohang]”, *Chiyök kwa yöksa* 49 (2021): 87-124.
- Hyönjang (Xuanzang). *Tae Tang söyökki* (Da Tang Xiyu ji). Translated by Tökchu Kwön. Söul: Olchae, 2015.
- I, Chuhyöng, ed. (Rhi, Juhung). *Tong Asia Kuböpsüing kwa Indo üi pulgyo yujök*. Söul: Sahoe p'yöngnon, 2009.
- I, Hansang (Lee, Han-Sang). “Wanghüingsaji mokt'ap kwa Mirüksaji sökt'ap sari changöm üi pigyo[The Comparison of the Buddha's Sarira from Wangheungsa and Mireuksa Temple Site]”, *Yöksa wa tamnon* 54 (2009): 49-72.
- I, Pyönggho (Lee, Byongho). “Paekche Sabi sigi sojosang üi chön'gae kwajöng”, *Tongwön haksul nonmunjip* 14 (2013): 323-366.
- Kang, Hüichöng (Kang, Heejung). “6 segi Punam (Funan) kwa Sandong (Shandong) üi Sarünat'ü (Sāmāth) yangsik pulsang-Nambanghaero rül t'onghan Indo pulgyomisul üi tongiön-”, *Chungguksa yön'gu* 67 (2010): 29-57.
- \_\_\_\_\_. “Pet'ünam (Vietnam) nambu Ok Eo (Óc Eo) kodae chonggyo misul üi t'ükching kwa üüü”, *Misulsahak yön'gu* 305 (2020): 171-196.
- Kang, Könu (Kang, Kunwoo). “Kodae padatkil ül t'onghae Hanbando e chöllae toen mulchil munhwa[Material Culture Transmitted to Korean Peninsula via Maritime Route]”, *Tonga yön'gu* 41, no. 2 (2022): 81-118.
- Kim, Kyuho (Kim, Gyu Ho), Chihyön Yun, Oyöng Kwön, Chunyöng Pak, and Thi Ha Nguyen. “Pet'ünam (Vietnam) Ok Eo (Oc Eo) yujök ch'ult'o yuri gusül üi chaejil mit t'üksöng yön'gu[A Study on the Material and Characteristics of Glass Beads from Oc Eo Site, Vietnam]”, *Herit'iji: yöksa wa kwahak* 49, no. 2 (2016): 158-171.
- Kim, Tongha (Kim, Dong Ha). “P'ohang Pöpkwangsaji Kümdang üi p'yöngmyön kyehoek kwa sökcho yörae chwasang[A Study on the Plan and Stone Buddha of Geumdang at Beopgwangsa Temple site in Pohang]”, *Pulgyo misulsahak* 37 (2024): 43-73.
- Küm, Chongwan (Kim, Jong-wan). “Yang jikkong do (Liang zhigong tu) üi söngnip paegyöng”, *Chungguk kojungsesa yön'gu* 8 (2001): 29-67.
- Kungnip Kongju pangmulgwan (Gongju National Museum). *Muryöng wangnüng sin pogosö*. Vol. IV. Kongju: Kungnip Kongju pangmulgwan, 2018.
- Kungnip Kwangju pangmulgwan (Gwangju National Museum). *Hamp'yöng Yedök-ri Sindök kobun*. Kwangju: Kungnip Kwangju pangmulgwan, 2021.
- Kungnip Mirüksaji yumul chönsigwan. *Ilche kangjöngi sajin üro pontün Iksan üi munhwa yusan*. Iksan: Kungnip Mirüksaji yumul chönsigwan, 2017.
- Kungnip munhwajae yön'gus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Mirüksaji sökt'ap kidanbu palgulchosa pogosö*. Taejön: Kungnip munhwajae yön'guso, 2012.
- Kungnip Puyö pangmulgwan (Buyeo National Museum). *Puyö Kümgangsaji*. Puyö: Kungnip Puyö

pangmulgwan, 2023.

Kye, Mihyang (Kye, Mihyang). "Ch'önch'uk Kuböpsüng üi haengjök kwa sasang yön'gu-7~8 segi Hyeryun, Wönp'yo, Hyech'o rül chungsim üro-[A Study on the Thought and Activities of Silla Buddhist Pilgrims-Focusing on Hyeryun, Wonpyo, Hyecho in 7~9 Century-]", *Hanguk pulgyohak* 75 (2015): 185-218.

*Maha sünggi yul* (Mohe sengqi lü) 2. Translated by Yöngmu I. Söul: Tongguk taehakkyo pusöl Tongguk yökkyöngwön, 1995.

Pak, Namsu (Park, Namsu). "752 nyön Kim T'aeryöm üi taeil kyoyök kwa *Mae Silla murhae* (Bai shiragi mono noge) üi hyangyak", *Hanguk kodaesa yön'gu* 55 (2009): 341-391.

Pak, Taenam (Park, Dae-Nam), and Songran I (Song-Ran Lee). "Chungguk Su (Sui) insu (renshou) 4 nyön Sindök sa (Shende si) sarigu yön'gu (sarira reliquary)", *Han'guk kodaesa t'amgu* 6 (2010): 201-249.

*Sabun yul* (Sifen lü) 2. Translated by Wölun Kim. Söul: Tongguk taehakkyo pusöl Tongguk yökkyöngwön, 1995.

Sin, Suk (Shin, Suk). "Silla Hüngdök wang kyosö e poi nün kongye changsik kwa kukche kyoyök[Decorations on Craft Works and International Trade Revealed in King Heungdeok's Decree of Silla]", *Han'guk kodaesa t'amgu* 25 (2017): 309-340.

Sin, Yongch'öl (Shin, Yongchul). "T'ongil Silla sökt'ap sari anch'i changso e kwanhan koch'al", *Pulgyo misulsahak* 5 (2007): 69-97.

*Sipsong yul* (Shisong lü) 3. Translated by Hanchöng I. Söul: Tongguk taehakkyo pusöl Tongguk yökkyöngwön, 1995.

*Tae jido ron* (Da zhidu lun) 1. Translated by Söngku Kim. Söul: Tongguk taehakkyo pusöl Tongguk yökkyöngwön, 1995.

Tongbuga yöksa chaedan, *Namjesö (Nan Qi shu)*, *Yangsö (Liang shu)*, *Namsa (Nan shi) oegukchön yökchu*, Söul: Tongbuga yöksa chaedan, 2010.

*Yökchu Ilbon sögi* (Nihon shoki) 2. Translated by Minsu Yön. Söul: Tongbuga yöksa chaedan, 2013a.

*Yökchu Ilbon sögi* (Nihon shoki) 3. Translated by Minsu Yön. Söul: Tongbuga yöksa chaedan, 2013b.

### 3.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Zhang, Yuhuan. *Zhongguo ta*. Taiyuan: Shanxi renmin chubanshe, 2000.

### 4. Secondary Sources in English

Strong, John S. *Relics of the Buddh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국문초록

부처의 조발은 인도에서 기원하여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전해졌다. 구법승들은 천축에 가서 조발탑을 실견하고 순례기에 남겼다. 스리랑카 제타바나 사원, 미얀마 쉐다곤 사원 등이 조발 공양과 관련한 성소이다. 동남아시아 고대 국가인 부남국에도 부처의 머리카락이 성물로 숭배되었다. 부남국의 왕은 중국 양 무제의 요청으로 부처의 머리카락을 바쳤다.

한역 불교 경전이 유입되고, 혜초를 비롯한 구법승의 왕래를 통해 조발 공양이 한반도에도 전래되었을 것이다. 조발 공양과 관련해서는 미륵사지 출토품이 주목된다. 미륵사지에는 2종의 토제나발이 전하는데, 이 중 크기가 큰 토제나발은 서금당지 등에서 발굴된 것으로 소조불상의 일부로 추정된다. 반면 미륵사지 서탑 기단부 바닥 석에서 나온 토제나발은 크기와 발굽 장소로 볼 때, 특정 공간에 매납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제작된 공양품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장소에 손톱 모양 은제장식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두 유물은 부처의 진신사리를 조형화한 공양품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 사찰에서 나발이 출토된 바 있지만, 나발과 손톱 모양의 유물이 함께 나온 예는 미륵사지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Abstract

# Origins and Beliefs of Buddha's Hair and Nail Relics Excavated from Mirūksa Temple Site in Iksan

Kang, Kunwoo\*

The veneration of the Buddha's hair originated in India and spread to Sri Lanka, Southeast Asia, and China. Buddhist monks who traveled to India (Tianzhu) on pilgrimages recorded their visits to sacred sites associated with the Buddha's hair relics. Notable pilgrimage sites include Jetavana Monastery in Sri Lanka and the Shwedagon Pagoda in Myanmar. In Funan, an ancient kingdom of Southeast Asia, the Buddha's hair was also revered as a sacred relic.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the king of Funan presented strands of the Buddha's hair to Emperor Wu of the Liang dynasty at his request.

Through the transmission of Chinese-translated Buddhist scriptures and the travels of pilgrim monks such as Hyech'o, the veneration of the Buddha's hair likely spread to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mong the notable archaeological finds associated with this practice are relics unearthed at Mirūksa Temple. Two types of earthen hair coils (t'oje nabal) have been discovered at the site. The larger specimen, found near the Sögūmdang site, is presumed to be part of a clay Buddha statue. In contrast, the smaller hair coil, excavated from the foundation stone beneath the western pagoda's stylobate, appears to have been independently crafted and interred as a dedicated offering. Furthermore, a silver nail-shaped ornament was discovered at the same location. These two artifacts are thought to be symbolic offerings representing the Buddha's physical relics (śarīra). Although similar hair coils have been found at other temple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co-occurrence of a hair coil and a nail-shaped artifact at Mirūksa Temple is unique, highlighting the site's particular significance in the context of relic worship.

---

\* Curator, Iksan National Museum